■ 키스 해링전 관람포인트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 광주전이 열리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에 들어서면 키스 해링의 작품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오는 2011년 2월27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키스 해링 작품은 대부분이 '무제'
작품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 몫

8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개막하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8일~2011년 2월27일)은 천재예술가의 톡톡 튀는 상상력을 접할 수 있는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미술관 정문에 들어서면 키스 해링 작품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장은 제1~3전시실(1층), 제4~6전시실(2층) 등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실크스크린,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사진자료들로 꾸며진다. 특히 뉴욕 지하철을 연상케 하는 노란색 철 구조물의 독특한 컨셉이 눈길을 끈다. 이번 키스 해링전의 관람포인트를 소개한다.

◆행동하는 예술

강한 비트가 흘러나오는 제1전시실은 사회에 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을 나타내주는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남아프리카에 자유를'이라는 작품은 뱀이 사람 목을 조르는 이미지를 담았다. 비행접시 2대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공격하고 옆에 있던 임신부가 놀라는 장면을 그린 '무제'라는 작품도 기술이 인류 문명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블랙라이트 아래 빛을 내는 형광 물감을 이용해 작업한 것으로 전시실에는 조명이 설치돼 있어 작품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 출신인 해링은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1982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반핵 시위 포스터를 비롯해 1985년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회 비주류인 동성애자로서 그는 사람들을 성별이나 나이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사람의 이미지를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나이를 분간할 수 없도록 그렸다. 성과 인종, 나이에 상관없이 소통하는 사회를 꿈꿨기 때문이다.

◆ 앤디 워홀의 흔적

제2전시실은 키스 해링과 앤디 워홀의 특별한 인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링은 앤디 워홀을 위해 '앤디 마우스'라는 연작을 창안했다. 앤디 마우스 모습은 미키 마우스의 큰 귀에 앤디 워홀을 상기시키는 선글라스와 가발을 착용했다.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와 대중문화 모방을 통해 '팝아트(Pop art)'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를 개척한 앤디 워홀에 대한 찬사가 느껴진다.

둘은 나이 차이가 서른 살이나 났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였다. 워홀은 키스 해링이라는 젊은 작가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으며 해링에게 워홀은 '거대한 산이자 멘토'였다.

◆ 대중과 소통

제3전시실에서 제4전시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해링 예술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뉴욕 지하철 외벽 빈 광고판에 밑그림 없이 한번에 이미지를 완성하는 사진들이 여럿 걸려 있다. 80년대 초반 지하철 퍼포먼스를 통해 해링은 예술이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알렸다.

이는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그는 금세 유명인이 됐다. 정식 화랑에 데뷔한 것은 그 후였다. 보통 화랑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전통적인 작가의 길을 걷지 않은 셈이다.

미술 기법 역시 대중이 쉽게 해링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실크스크린과 동판화 등 여러 판화 기법을 활용했다.

◆무제(Untitled)

키스 해링 전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개'와 '기어다니는 아기' 등이다. 해링은 그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개는 동물과 영혼의 대변자이고 아이는 원초적 인간의 이미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키스 해링 작품 이름은 대부분 '무제(untitled)'다. 제목이 없다는 말이다. 작품에 대한 해석과 느낌은 보는 사람 몫이라는 무언의 암시인 셈이다. 실제 작품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해링은 "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3전시실에서는 키스 해링의 일상과 작업과정을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Drawing the Line'(30분)이 상영되며 제6전시실에서는 그의 작품 이미지를 입힌 다양한 종류의 아트상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전시관 가는 길

상록전시관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도심속의 미술관이다. 상록근린공원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생전의 키스 해링이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한 만큼 전시 장소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상록전시관은 지하철 1호선 농성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다. 시내버스는 농성동 상록회관을 경유하는 송정 19, 봉선 37, 문흥 39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미술관 주차장과 상록회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www.haring.co.kr. 관람료는 일반 1만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문의 062-613-5401.

풀잎이 흔들린다 바람인가 보다

김인수전 10~18일 호남대갤러리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풀잎과 나뭇가지를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서양화가 김인수(호남대 미술학과 교수)씨가 오는 10~18일 호남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바람 : 풀밭에서'를 주제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풀잎을 형상화한 신작을 발표한다.

추상적인 화면에 바람이 불고 풀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잡아냈고 녹색과 파랑 등 원색을 사용해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했다.

'풀밭나들이 Ⅰ'

'바람의 노래'전 등 10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남도 2000년'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올라… 피아노… 사찰… 겨울밤…

11일 비올리스트 한혜원 초청 '실내음악회'

비올라와 피아노의 아름다운 화음이 사찰의 겨울밤을 수놓는다.

비올리스트 한혜원〈사진〉씨 초대 실내음악회 '공음'(空音)이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 문화공간 로터스에서 열린다.

한씨는 서울예고 졸업 후 독일로 유학,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거쳐 베를린 국립음대 석사과정 졸업 예정인 비올리스트이다. 2008년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뮤직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초대받아 연주했으며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 객원단원, 베를리너 마이스터솔로스트 단원으로 2009년 노르웨이 순회공연 등에 참여했다.

한씨는 이번 음악회에서 바흐의 '첼로 모음곡 3번',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등 을 연주한다.

제1회 유니버설 음악콩쿠르 실내악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신자연씨가 피아노 협연한다. 문의 0623830108. /김대성기자 bigkim@

'3시의 한소리 데이트' 이번달엔 11일에 만나요

노영심 특별출연

한달에 한번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는 '3시의 한소리 데이트'가 열렸다.

지난 2000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견 성악가로 구성된 한소리회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저소득층을 위한 음악회, 해외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올해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 단체로 선정돼 금호아트홀과 토요음악회를 꾸려왔다.

11일 열리는 마지막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푸치니의 '라 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그대의 찬손 내가 녹여주리라', 비제의 '카르멘' 중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2중창' 등이다.

한소리회는 매달 한차례씩 초대손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테너 박인수, 엄정행씨 등이 다녀갔고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노영심씨가 특별 출연, 자작곡 '오슬로의 아침'과 '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려준다. 문의 062-227-74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